

2025 특별 기획 공연

The Best Opera Gala in the World

지상 최대의
오페라 선율

CAVALLERIA RUSTICANA

L'ELISIR D'AMORE

LA BOHÈME

RIGOLETTO

주 최 | 4세계4대오페라축제
WORLD OPERA FESTIVAL

주 관 | K&L PRODUCTION

협 찬 | IT Login

주 | 노콤
NOM
COMMUNICATION

2025.4.29
TUE 19:30

메종대극장

목차 TABLE of CONTENTS

연주곡 순서 3p

출연진 8p

작품 해설 작곡가, 작품, 줄거리

CAVALLERIA RUSTICANA 13p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L'ELISIR D'AMORE 16p
사랑의 묘약

LA BOHÈME 20p
라 보엠

RIGOLETTO 24p
리골레토

제작진 28p

주관 단체 소개 29p

주최 단체 소개 31p

Opera CAVALLERIA RUSTICANA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 Preludio

서곡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 O Lola ch'ai di latti la Cammisa

우유빛 흰 옷의 로라여

Ten. 이정원

3. Il Cavallo Scalpita

채찍의 노래

Bar. 양준모

4. Voi lo sapete o Mamma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Sop. 이승은

5. Tu, qui Santuzza

산뜻차, 그대 여기에

Sop. 이승은 Ten. 이정원 M.Sop 민주희

6. Intermezzo

간주곡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7. Mamma, quel Vino è generoso

어머니, 이 포도주는 독하군요

Ten. 이정원 M. Sop 민주희

P 1부 PROGRAM

Opera **L'ELISIR D'AMORE** 사랑의 묘약

8. Come Paride vezzoso

옛날에 파리스처럼

Bar. 박정민

9. Una Parola, o Adina

아디나여, 한 마디만

Sop. 김순영 Ten. 안세권

10. Udite, udite!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Bass. 권서경

11. Ardir! Ha forse il Cielo... Obligato

아마도 하늘이 나에게... 감사하오

Ten. 안세권 Bass. 권서경

12. 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흘리는 눈물

Ten. 안세권

13. Prendi, per me sei Libero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Sop. 김순영 Ten. 안세권

14. Ei corregge ogni Difetto

모든 잘못을 바로잡겠소

Sop. 김순영 Ten. 안세권 Bar. 박정민 Bass. 권서경

P 2부 PROGRAM

Opera **LA BOHÈME** 라 보엠

1. Che gelida Manina

그대의 찬 손

Ten. 윤정수

2. Si, Mi chiamano Mimì

내 이름은 미미

Sop. 정꽃님

3. O soave Fanciulla

오! 사랑스런 아가씨

Ten. 윤정수 Sop. 정꽃님

4. Quando m'en vo

길을 걸을 때면

Sop. 이경진

5. Dunque è proprio finita!

완전히 끝났어!

Sop. 정꽃님 Sop. 이경진 Ten. 윤정수 Bar. 양준모

6. O Mimì, Tu più non torni

미미, 너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Ten. 윤정수 Bar. 양준모

7. Vecchia Zimarra, senti... Finale

낡은 외투여 들어다오... 피날레

Bass. 안균형 Ten. 윤정수

P 2부 PROGRAM

Opera **RIGOLETTO** 리골레토

8. È il sol dell'anima

사랑은 영혼의 햇살

Sop. 안혜수 Ten. 김지현

9. Caro nome

그리운 그 이름

Sop. 안혜수

10. Cortigiani!

가신들이여!

Bar. 박정민

11. Tutte le feste... Si, Vendetta!

교회에 갈 때마다... 그래, 복수다!

Sop. 안혜수 Bar. 박정민

12. La Donna è mobile

여자의 마음

Ten. 김지현

13. Bella figlia dell'amore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여

Sop. 안혜수 M. Sop. 민주희 Ten. 김지현 Bar. 박정민

14. V'ho ingannato, colpevole fui!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Sop. 안혜수 Bar. 박정민

www.itlogin.co.kr


CISCO
Partner

네트워크의 모든 것

SAMSUNG

나를 위한 모든 것




CISCO
Partner



네트워크 제품



무선 AP 제품



영상회의 시스템

SAMSUNG



가전



TV



노트북 / 태블릿



Cisco 문의 02-711-1175

삼성전자 문의 070-7842-1024

C 지휘자 & 오케스트라 CASTS

C 지휘 CONDUCTOR



김봉미

- 데트몰트 국립 음악대학 지휘 석사, 에센폴크방 음악대학 피아노 석사
- 국제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오페라대상, 헝가리 국제 지휘콩쿠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여성문화인상
- 베하필하모닉 예술총감독, 세계4대오페라축제 음악총감독
- 부산 오페라하우스 시즌 예술총감독,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역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산대학교, 단국대학교 겸임 및 초빙교수 역임

O 오케스트라 ORCHESTRA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4년 출범한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 나눔으로 조화로운 삶,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내 최고의 관현악단이다.

창작오페라페스티벌, 세계4대오페라축제, 스티브 바라캇 내한 20주년 공연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중심에 서 있을뿐 아니라, 해설이 있는 새 틀의 오페라 마술피리, 동서양을 융합한 ‘날라리 콘서트’, The magic 팬텀&퀸, 위대한쇼맨, 클래식과 명작을 하나로 묶은 안데르센 콘서트등 베하필만의 기획으로 선보였다. 세계로 향하는 K클래식의 선두주자, 동서양을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거침없이 오가는 공연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C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CAVALLERIA RUSTICANA CASTS

SANTUZZA
SOP. 이승은



- 단국대학교, 이탈리아 토리노, 밀라노 국립음악원 졸업
- 오사카, 칸타루파, 줄리엠타 시미오나토, 캄포리에타 국제 콩쿠르 우승
- 예술의전당 등 다수의 국내 공연장 및 스페인 알리칸테 극장, 이탈리아 루카 질리오 극장, 스위스 제노바 르망 극장,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립 극장, 몰도바 키시너우 국립극장 주역
- 현) 단국 대학교, 추계예술 대학교 출강

TURIDDU
TEN. 이정원



- 연세 대학교 성악과, 파우스토레프란카 국립음악원 석사
- 티토 스키파, 마리아 칼라스, 벨기에 베르비에, 프랑코 코렐리 국제 콩쿠르 우승
- 한국인 테너 최초 밀라노 스칼라 극장 주역. 베르디 <맥베스> Foligno, 크로아티아,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지 유수의 극장에서 주역
- 대한민국 광복 60주년 기념음악회 연주

ALFIO
BAR. 양준모



- 연세대학교 성악과,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쿠르, 독일 SWR 방송 콩쿠르 우승
- 뉘른베르크 최고의 바그너상 수상
-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랑카 페스티벌, 스위스 취리히 국립 극장, 함부르크 국립 극장,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드레스덴 국립극장 전속 및 주역
- 현) 연세대학교 성악과 교수

LOLA
M.SOP. 민주희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대 마스터 오페라 석사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하우스 오픈 스튜디오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하우스, 뢰벡 시립 오페라 하우스, 뢰네부르크 극장등에서 주역, 솔리스트 활동
- 엘리제마이어 콩쿨 3위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C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CASTS

ADINA
SOP. 김순영



- 한양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Mannheim국립음대 Diplom 및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 스위스제네바 국제콩쿨, 동아콩쿨입상, 성정음악콩쿨1위
국립오페라단 라트라비아타, 호프만의 이야기, 마술피리, 유쾌한 미망인 등 다수 주역
- 뮤지컬 팬텀 여주인공(크리스틴 다애 역)
- 한세대 음대 초빙교수, 세종대 음대 외래교수 역임

NEMORINO
TEN. 안세권



-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
- jtbc 팬텀싱어 시즌2 3위 에델라인클랑
-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 최고점수
- 팬텀싱어 전국 투어 갈라 콘서트
- 에델라인클랑 정규 앨범
- 1집 〈약속〉, 2집 〈책장을 넘긴다〉 발매
- 문화부 장관상 수상

BELCORE
BAR. 박정민



- 연세대학교성악과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파르마 코나티 아카데미 수료
-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콩쿠르 등 30여 국제 콩쿨 수상
- 스페인 사바델 극장,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극장, 이탈리아 사르데냐 칼리아리 극장 주역, 이탈리아 푸치니 〈투란도트〉 핑 역 출연
-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과 외래교수 역임

DULCAMARA
BASS. 권서경



- 선화예중 선화예고 졸업, pavia conservatorio 수료
-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원 수료
- 음악춘추 및 CBS 음악콩쿠르 입상
- JTBC팬텀싱어 3위입상
- 쿼트로 시엔토스와 앨범작업
- Turandot, Salome, La traviata등 다수 오페라작품 활동

C라보엠 LA BOHÈME CASTS

MIMI
SOP. 정꽃님



- 서울대학교, 미국 템플 대학교 석사, 매릴랜드 대학교 박사
- 폴 로버슨 국제 콩쿨 입상
-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박쥐, 사랑의 묘약, 아드리아나 르퀴 브뢰르, 마술피리, 라보엠, 카르멘, 코지 판 뚝테 등 주역
- 미국과 한국에서 다수의 독창회와 기념음악회,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방송출연
- 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RODOLFO
TEN. 윤정수



- 연세대학교 성악과,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석사
- 스페인 몽세라 카바예, 런던 리하르트 타우버, 웨일즈 스튜어트 버로우, 프랑스 Les Azuria 국제 콩쿠르 우승
- 로열 오페라 하우스, 웨일즈 국립 오페라, 스코티시 오페라, 덴마크 국립 오페라,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 주역가수
- 현) 추계예술 대학교 교수

MUSETTA
SOP. 이경진



-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대 마스터 졸업
- 이탈리아 리날도 펠리조니 국제 콩쿠르 외 대수 콩쿨 수상
- 제 15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 신인상
- 국립 오페라단 외 대수의 국내 무대 및 독일 귀터슬로 극장, 독일 서부 지역 순회 콘서트, 독일 통일 기념 음악회 등 다수의 국제 무대 활동
- 현) 영남 대학교 외래 교수 및 전문 연주자 활동

MARCELLO
BAR. 양준모



- 연세대학교 성악과,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쿠르, 독일 SWR 방송 콩쿠르 우승
- 뉘른베르크 최고의 바그너상 수상
-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랑카 페스티벌, 스위스 취리히 국립 극장, 함부르크 국립 극장,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드레스덴 국립극장 전속 및 주역
- 현) 연세대학교 성악과 교수

COLLINE
BASS. 안균형



- 서울대학교 성악과, 프랑스 퐁롱 음악원 수석 졸업
- 마리오델모나코, 알렉산드리아 국제콩쿨 등 입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대구 국제오페라 페스티벌 등 출연
- <라 보엠>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메시아> <레퀴엠> 등 300편 이상의 오페라, 콘서트 공연
- 현) 뉴오페라페스티벌 예술총감독, 프로덕션보체 대표, 베아 오페라음악예술원 교수

C 리골레토 RIGOLETTO CASTS

RIGOLETTO
BAR. 박정민



- 연세대학교성악과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파르마 코나티 아카데미 수료
-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콩쿠르 등 30여 국제 콩쿨 수상
- 스페인 사바델 극장,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극장, 이탈리아 사르데냐 칼리아리 극장 주역, 이탈리아 푸치니 〈투란도트〉 핑 역 출연
-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과 외래교수 역임

GILDA
SOP. 안혜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성악과 석사 졸업
- 이탈리아 국제 성악콩쿠르 Piero Cappucilli 1위 및 청중상
- 데트몰트 국립 극장 주역, 로마 신년음악회, 터키 대통령 오케스트라 특별 초청 협연
-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역임, 제주 국립대 출강
- 오페라 〈리골레토〉〈마술피리〉〈사랑의 묘약〉등 오페라 주역

DUCA DI
MANTOVA
TEN. 김지현



-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웨일즈 국제성악아카데미 석사, 프랑스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영아티스트, 영국 로얄오페라극장아티스트
- 한국 독일가곡콩쿨, Giulietta Simionato, Les Azuriales, Wilhelm Stehnhammar, Toulouse 국제콩쿨 수상
- 스웨덴 왕립 오페라단 단원
- 현)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출강, 서울미래예술교육원 교수

MADDALENA
M.SOP. 민주희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대 마스터 오페라 석사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하우스 오펜 스튜디오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하우스, 뢰벡 시립 오페라 하우스, 뢰네부르크 극장등에서 주역, 솔리스트 활동
- 엘리제마이어 콩쿨 3위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M Pietro Mascagni

1863-1945

피에트로 마스카니



푸치니와 대화중인 마스카니

가난한 빵집의 아들로 태어난 마스카니는 그를 법률학자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에 반해 소프레디니 음악원에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했다.

1889년, 밀라노의 손초뇨가 공모한 단막 가극에 단, 8일만에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완성하여 26살의 나이에 입상하게 된다. 이로써 큰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이후 15개의 가극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남겼다.

마스카니는 레온까발로와 함께 사실주의 오페라를 상징하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으나,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이후 작곡된 오페라는 어느 것도 큰 성공을 못 거두었고, 라미코 프리츠 정도만 알려져 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화려한 첫 시작과 대비되는 불우한 말년을 보내다가 로마에서 81세에 생을 마쳤다.

About CAVALLERIA RUSTICANA

작품 해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초판 악보

시골 남녀의 치정사건의 적나라한 표현, 짧고 드라마틱한 구성, 시칠리아 무드가 넘치는 음악과 방언의 사용, 직관적이면서도 품위가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서정성이 넘치는 이 작품에 열광하게 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인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위대한 예술이라는 오페라는 19세기 중엽 이후 사실성과 극적 표현을 강조한 베리즈모의 작품으로 발달된다.

1888년 출판사 리코르디와 더불어 작품 공모와 신진 작곡가 발굴에도 기여하던 손초노에서 개최한 단막오페라 공모전에 당시 무명이었던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작품 Cavalleria Rusticana가 1위를 거머쥐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배경 삽화

CAVALLERIA RUSTICANA
SYNOPSIS

작품 줄거리



산뚜차와 뚜릿두, 그리고 이들을 등지고 들어가는 로라

시칠리아의 한 작은 마을. 성당 종소리가 부활절 아침을 깨우고 들뜨고 활기찬 기운과 오렌지 향기가 퍼진다.

뚜릿두는 산툰짜라는 연인이 있지만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으로 머릿속이 가득하여 *‘O Lola ch'ai di latti la cammisa (우유빛 흰 옷의 로라여)*를 부른다.

뚜릿두와 로라는 예전에 연인이었으나 뚜릿두가 군대에 간 사이 로라가 동네 마부 알피오와 결혼해 헤어졌으며 현재는 각자의 애인과 남편이 있음에도 다시 만나는 관계이다. 부활절 미사가 시작되기 전, 로라의 남편 알피오가 마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며 *‘Il cavallo scalpita (채찍의 노래)’*를 부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호기롭게 주목을 끄는 남편에게 로라는 관심이 없으며 뚜릿두와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는다.

산툰짜는 변심한 뚜릿두에게 예전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로라에게 빠져있는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산툰짜는 뚜릿두의 어머니에게 *‘Voi lo sapete o mamma (어머니도 아시다시피)’*를 부르며 제발 그가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며 절규한다.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 모인다.



뚜릿두에게 결투신청하는 알피오

산툰짜는 뚜릿두를 보고 이성을 잃어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왜 자기와 있어주지 않는지 흥분하며 다룬다. 산툰짜를 떼어내고 벗어나려는 뚜릿두와 그에게 매달리는 산툰짜가 *‘Tu, qui Santuzza (그대 산툰짜, 여기에 있네)’*를 부른다. 산툰짜는 로라의 남편 알피오에게 로라와 뚜릿두의 부정을 말해버리고 극노한 알피오는 뚜릿두와 결투하게 된다. 두 남자의 결투 직전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Intermezzo (간주곡)’*가 연주된다. 뚜릿두는 비극적 회한과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가 *‘Mamma, quel vino è generoso (어머니, 이 포도주는 독하군요)’*를 부르며 마지막 인사와 함께 산툰짜를 부탁하고 결투장으로 떠난다. 뚜릿두가 죽었다는 마을 여인의 찢어질 듯한 외침으로 비극이 종결된다.



GAETANO DONIZETTI

1797-1848

가에타노 도니체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도니제티는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당시 지역 사회봉사 차원에서 설립된 학비 없는 음악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작곡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마이어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에게서 당시 이탈리아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받게 되었고, 1830년에 밀라노에서 발표한 비극적 오페라 <안나 볼레나>의 성공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뒤를 이은 <사랑의 묘약>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나, 이후 병으로 인한 정신 쇠약으로 음악적 결함이 많아지며 치명적 실수를 되풀이하였고, 결국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된 채 고향 베르가모에서 사망하였다. 도니제티는 벨리니, 로시니와 더불어 19세기 전반의 벨칸토 오페라를 주도한 작곡가로 오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곡가로 각인되어 있다.



베르가모에 있는 도니체티의 생가

About 'ELISIR D'AMORE

작품 해설



사랑의 묘약이 초연된 밀라노의 Teatro Lirico

도니제티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사랑의 묘약>은 펠리체 로마니의 대본을 바탕으로 2주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 중세의 기사문학 <트리스탄>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을 소재로 삼아 실존하지 않는 묘약을 매개로 순수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펠리체 로마니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극구 만류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되었다.

각 등장인물의 명확한 캐릭터 구분과 각각의 음악적 특성이 전체적인 오페라의 완성도를 더해주고 있으며, 바리톤과 베이스 성악가의 음악은 이탈리아 부파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랑의 묘약 악보 초판

L'ELISIR D'AMORE
SYNOPSIS

작품 줄거리

가난한 농부 네모리노는 아름다운 지주의 딸 아디나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 반면 군인 벨코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자신감 있게 그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Come paride vezzoso* - (옛날에 파리스가 한 것처럼),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네모리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Una parola, o Adina* - (아디나여 한마디만). 하지만 아디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약장수 둘카마라의 등장으로 들떠있는 마을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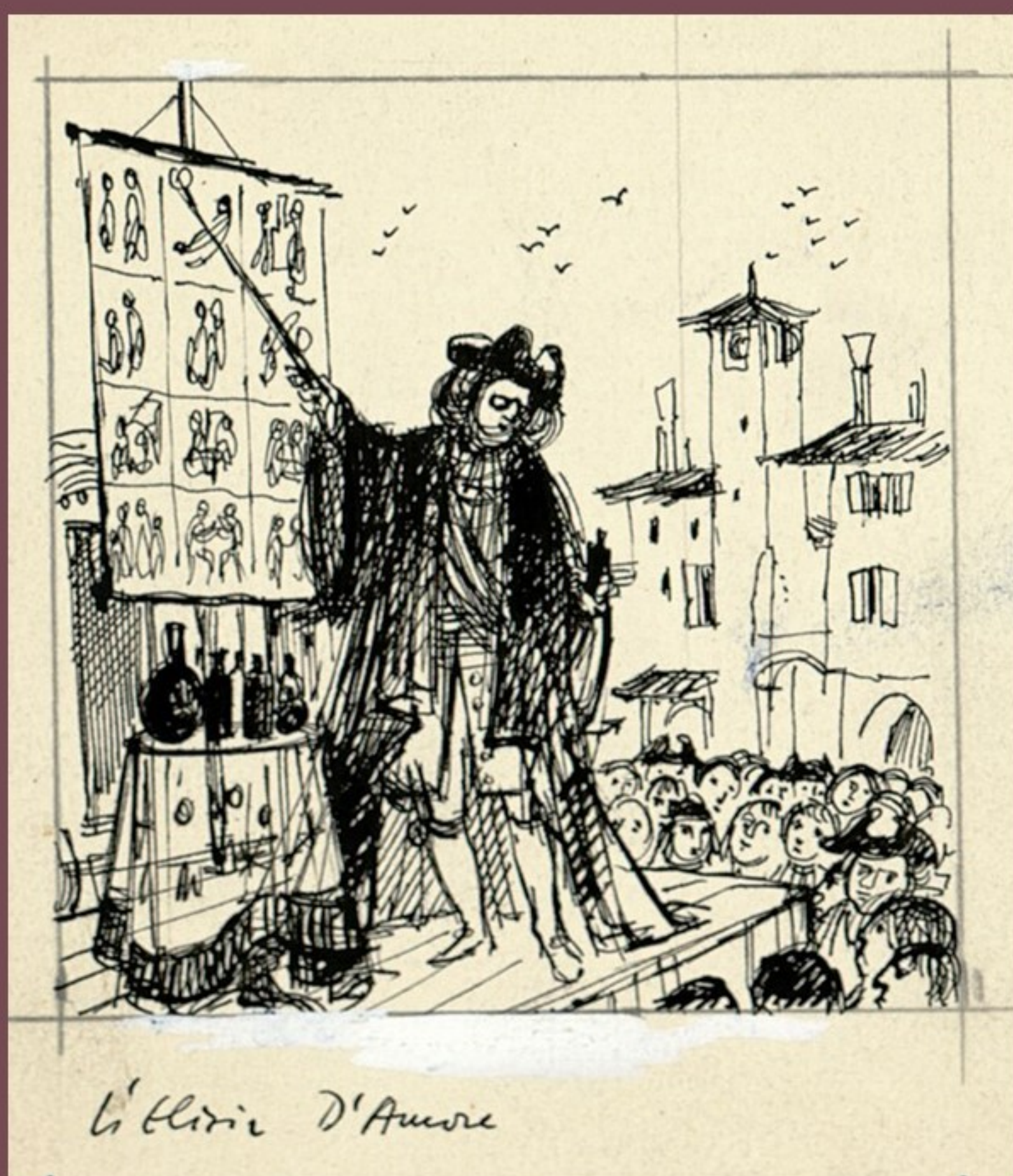
이때 마침 둘카마라가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약을 판매하게 된다 *Udite! Udite!* -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네모리노는 둘카마라에게 신화 속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있는지 묻게 되고, 둘카마라는 레드 와인을 묘약으로 속여 네모리노에게 판다 *Ardire! Ha forse il cielo* - (아마도 하늘이 나에게).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 도망가야 하는 둘카마라는 묘약의 효과가 하루는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믿게 된 네모리노는 다음 날 시작될 효과를 위해 서둘러 묘약을 마시게 된다. 묘약이라고 생각한 와인을 먹고 술에 취한 네모리노는 아디나에게 주정을 부리며 아디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때 등장한 벨코레는 아디나에게 급작스럽게 결혼을 제안하게 되고 네모리노의 모습에 짜증이 났던 아디나는 화김에 벨코레의 제안을 수락한다.

L'ELISIR D'AMORE
SYNOPSIS

작품 줄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면 묘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네모리노는 그저 여유롭다. 그러나 아디나가 결혼식을 지금 당장 올리자는 벨코레의 제안을 승낙하자 크게 당황하며 돌카마라를 애타게 찾는다.

그날 오후, 아디나와 벨코레의 결혼식 파티가 한창이다.



가짜 약의 효능을 광고하는 돌까마라

숙소로 돌아온 돌카마라를 만난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약을 달라고 하지만 돌카마라는 돈이 없는 네모리노에게 약을 주지 않는다.

난감한 네모리노의 뒤로 벨코레가 나타나 밤까지 결혼식을 미루자는 그녀의 마음속 도통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며 등장한다. 네모리노와 마주친 벨코레는 돈이 필요한 네모리노에게 군에 입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네모리노는 입대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이때 공교롭게도 마을에는 네모리노가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동네 처녀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한다.

네모리노는 드디어 묘약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믿고 신이 나게 된다. 아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실의에 빠지는데 이때 돌카마라가 아디나에게 나타난다.

돌카마라의 이야기를 들은 아디나는 네모리노의 진심을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본 네모리노는 그녀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Una furtiva lagrima* -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런 그를 찾아와 붙잡는 아디나에게 네모리노는 묘약을 통해 얻은 고백은 필요하지 않라며 군에 입대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그의 진정성에 그녀는 그동안의 자신의 태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랑을 고백한다 *Prendi, per me sei libero* -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이런 둘의 모습에 놀란 벨코레는 상황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후 세상에 여자는 많이라며 떠나게 된다. 이때 돌카마라가 등장하여 진정한 사랑의 묘약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노래를 부르며 *Ei corregge ogni difetto* - (모든 잘못을 수정하오)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Puccini

1858-1924

자코모 푸치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루카에서 5대에 걸친 음악 집안에 태어났다. 베르디의 <아이다>를 보고 감동해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를 결심하고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하여 폰키엘리에게 수업을 시작한다. 마스카니와 함께 살며 고학을 이어 나가던 푸치니는 처녀작이 호평을 받은 이후 리코르디와의

계약으로 작곡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마농레스코>로 지위를 확립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푸치니는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등을 작곡하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푸치니의 고향 루카에 있는 푸치니 박물관과 동상

자리 잡았다.

그의 오페라의 주인공은 대부분 서민이었으며 비극적 인물로 설정해 청중의 동정을 끌어냈다.

최후의 역작 <투란도트>를 작곡하던 중,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푸치니는 베르디와 함께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 작곡가로 꼽히며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작곡가 중 한 명이다.

ABOUT LA BOHÈME

작품 해설

라 보엠은 푸치니 작품 중 가장 많이 공연되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을 기초로 하여 당시 푸치니와 많은 오페라 협업을 했던 주세페 자코사와 루이지 일리카의 이탈리아어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토리노 왕립극장에서 당대의 거장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후에 레온카발로가 동명의 오페라 작품을 내놓았을 만큼, 라 보엠은 당시에든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다.

보헤미안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추운 시즌에 많이 공연되는 특징이 있다.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무제타의 왈츠' 등이 작품 속 유명한 아리아이다.



푸치니와 주세페 자코사, 루이지 일리카



트렌토 소찰레 극장의 라 보엠 초연 포스터

LA BOHÈME
SYNOPSIS

작품 줄거리

프랑스 파리 라탱지구, 때는 크리스마스이브다. 춥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시인 로돌포와 화가 마르첼로가 각자의 일에 전념하려 하나 너무 춥고 배가 고파 까닭에 집중을 못 한다.

로돌포는 호탕하게 자신이 쓴 원고를 찢어 불을 지핀다.



모뮈스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보헤미안

이때 등장한 철학자 꼴리네, 그 뒤를 이어 들어오는 음악가 쇼나르. 쇼나르의 손에는 먹을 것이 들려있다. 원고를 태운 난로에 몸을 녹이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집주인 베누아가 찾아온다. 월세를 재촉하는 베누아에게 마르첼로가 기지를 발휘하여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 내쫓는다.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기기 위해 모뮈스 카페에 가기로 하고, 잠시 작품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로돌포만 집에 홀로 남은 채 세명이 먼저 카페로 출발한다.

로돌포가 작품을 손보던 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이웃집에 사는 미미라는 여인이 촛불을 붙여가도 되냐는 청을 하게 되고, 로돌포는 그녀를 집에 들여 술을 한 모금 먹게 한다. 초를 붙이고 나간 그녀는 자기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다시 돌아오고 이때 방안에 초가 꺼져 어두워진다. 두 사람은 바닥을 더듬으며 열쇠를 찾다가 서로의 손을 잡게 된다. 너무도 차가운 손에 처량함과 애정을 느낀 로돌포, 자신은 시인이며 마음은 부자라는 말을 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Che gelida manina* - (그대의 찬 손). 이어서 미미도 자신은 수를 놓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Sì, Mi chiamano Mimì* - (내 이름은 미미). 어둡고 가난한 삶에 운명처럼 만난 그들은 사랑을 직감하며 서로에게의 강한 호감을 주고받는다 *O soave fanciulla!* -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로돌포와 미미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뮈스 카페로 향한다.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노인 알친도르와 마르첼로의 연인이었던 무제타가 카페로 들어온다.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무제타 *Quando me'n vo'* - (길을 걸을 때면), 그리고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마르첼로. 결국 그들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거금의 계산서를 알친도르에게 남긴 채 카페를 떠난다.

LA BOHÈME
SYNOPSIS

작품 줄거리

파리로 들어가는 관문, 두 달여가 지났다. 누가 봐도 병약해 보이는 미미가 마르첼로를 찾아온다. 미미는 로돌포의 지나친 질투와 의심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이때 등장하는 로돌포, 미미는 급히 몸을 숨긴다. 그 역시 마르첼로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처음에는 미미는 무정한 여자라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미미가 몸이 너무 아프고 자신은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말을 한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미미, 기침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만다. 로돌포와 미미는 결국 서로에게 이별을 고한다 *Dunque è proprio finita! - (완전히 끝났어)*. 이때 마르첼로가 무제타를 끌고 나온다.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 했다면 무제타에게 화를 내는 마르첼로, 무제타는 그를 조롱한다. 결국 마르첼로와 무제타도 서로 헤어지고 만다.

다락방에서 작업을 하는 로돌포와 마르첼로, 둘은 헤어진 미미와 무제타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두 사람이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할 때 *O Mimì, Tu più non torni - (미미, 너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쇼나르와 콜리네가 들어온다.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제타가 기력을 다한 미미를 데리고 들어온다.



죽어가는 미미의 곁을 지키는 로돌포와 친구들

로돌포는 미미를 침대에 눕힌다. 무제타는 자신의 귀고리를 팔아 약을 사 와달라고 마르첼로에게 청하고, 콜리네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팔러나간다 *Vecchia zimarra, senti - (낡은 외투여 들어다오)*.

미미는 로돌포에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잠든다. 하지만 미미는 그녀의 회복을 강구하는 무제타의 기도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약을 구해온 친구들의 마음을 뒤로한 채 결국 어둡고 힘들었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고, 로돌포는 미미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곡을 하며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V Giuseppe Verdi

1810-1901

쥬세페 베르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 파르마현에서 태어났다. 잡화상을 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는 밀라노 국립음악원의 입학시험에 떨어진 후 개인 교습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초기에 <나부코>, <십자군의 롬바르디인>과 같은 애국적인 오페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는 <리골레토>에서 정점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후, <돈 카를로>, <라 트라비아타>등의 작품을 통해 오페라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탈리아 파르마의 베르디 생가

그의 음악적 성공의 위대함은 초대 이탈리아 국회의 의원으로 추천되어 정계에 진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때도 그는 끊임없는 창작활동으로 오페라의 진흥을 꾀했다.

이후 이집트 국왕의 의뢰로 막대한 사례금을 받고 수에즈 운하 개통 기념 오페라 <아이다>를 작곡해 이탈리아 오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베르디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작곡가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의 상당수가 그의 작품으로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작곡가로 새겨져있다.

ABOUT RIGOLETTO

작품 해설



‘왕의 환락’ 작가 빅토르 위고

리골레토 오페라의 원작이 된 건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이자 서양 문학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의 왕의 환락(Le Rois S’amuse)이다.

곱추 광대인 주인공이 프랑수아 1세가 자신의 딸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왕을 청부살인 하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초연 직후 상연이 중지되고 말았다.



라 페니체 극장의 리골레토 초연 포스터

이 사이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Francesco Maria Piave, 1810-1876)가 각색을 해 오페라 대본을 완성했고 이탈리아의 오페라 거장 베르디의 손에 의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리골레토가 탄생했다.

리골레토는 베르디 중기의 오페라로 전형적인 베르디 음악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보다 더 극적인 표현을 위해 레치타티보의 분량을 기존 오페라에 비해 많이 줄였으며, 가창과 오케스트라의 조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극중 상황을 잘 묘사한 오케스트라와 특유의 화성과 멜로디, 그리고 극적인 표현은 한층 더 발전한 베르디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준다.

RIGOLETTO SYNOPSIS

작품 줄거리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의 어릿광대다. 그는 공작을 위해 비열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으며 공작에게 희롱당한 여인을 조롱하는 등 간교한 행동을 일삼는다. 조롱당한 딸의 아버지인 몬테로네 백작이 자신을 저주하자 리골레토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때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가 등장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에게는 숨겨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질다였다. 리골레토는 항상 질다의 안전이 걱정이다. 만토바 공작이 수많은 여인을 농락하는 것에 자신이 일조했기에, 오히려 자신의 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강했다. 딸의 행동을 제약하며 단단히 단속하는 리골레토,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한 남자가 질다를 만나러 온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신분을 숨긴 만토바 공작이었다. 그가 가난한 학생이라고 믿고 있는 질다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만남을 갖는다. *<È il sol dell'anima - 사랑은 마음의 태양>* 그가 떠나간 후 질다는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되뇌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Caro nome - 그리운 그 이름>*



한편 공작의 신하들은 공작을 위해 공작이 노리는 질다를 납치하기로 하고, 리골레토를 속여 눈을 가린 후 질다를 공작에게 데리고 간다. 질다가 사라져서 잠시 상심했던 공작은 신하들이 질다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질다를 겁탈하고 만다. 뒤늦게 찾아온 리골레토, 그는 신하들에게 욕을 하며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저지당하게 되고, 자신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라며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

<Cortigiani, vil razza dannata - 가신들이여>

이때 나오는 질다, 질다는 아버지 리골레토에게 공작을 만난 사연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분노한 리골레토는 복수를 결심한다. *<Tutte le feste al tempio... Sì, vendetta! - 교회에 갈 때마다... 그래, 복수다!>*

RIGOLETTO SYNOPSIS

작품 줄거리

리골레토는 청부살인업자 스파라푸칠레를 찾아가 공작을 죽여 달라 청부한다. 스파라푸칠레와 그의 여동생 막달레나의 여관에 공작이 묵게 되는데, 공작의 유혹에 넘어간 막달레나가 *<Bella figlia dell'amore -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여>* 스파라푸칠레에게 그를 살려주자고 제안한다.



리골레토와 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던 리골레토,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렇다면 보따리에 들어있는 시체는 누구의 시체란 말인가..... 두려움에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 질다가 있었다. 질다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V'ho ingannato, Colpevole fui! -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를 사랑해서 대신 죽음을 택했다고 말하고 리골레토의 품에서 죽게 되고, 리골레토는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를 부르짖으며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스파라푸칠레는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화를 내나, 결국 막달레나에게 설득을 당하고 처음 찾아온 사람을 대신 죽여 리골레토에게 전해주자고 결정하게 된다.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질다는 공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 스파라푸칠레의 칼에 찔려 쓰러지게 된다.

곧 나타난 리골레토에게 공작의 시체라며 보따리를 건내준 스파라푸칠레, 리골레토는 복수를 통쾌해하며 기뻐한다. 리골레토가 시신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배에 싣고 강물에 버리려던 순간, 공작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스파라푸칠레의 여관

S 제작진 STAFF



방정욱 연출·제작감독

- 밀라노 에우로빠아 극장 연극연출 수료, 에우로빠아 극장 제작 스탭
- Arena di Verona 리골레토, 나부코, 투란도트 제작 스탭프, 잠실 주 경
기장 카르멘 연출
- 아이다, 오델로, 맥베드,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토스카 등 20여
오페라 작품 및 윤동주의 생애, 동물의 사육제 등 다수 뮤지컬 작품 연출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세종대학교, 창원대 대학원 MAC 아카데미,
YMCA 오페라합창단 상임연출 역임
- 2023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연출상 수상, 세계 4대 오페라축제 제작감독



전지성 오페라 코치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1위 입학, 수석졸업
- Maria Lombardi Regine, Ottorino Respighi 국제음악코치 콩쿠르 수상
- 사르수엘라 한국 초연 제안회&콘서트 - 플라시도 도밍고 초청 총감독
- 세계4대오페라축제 음악감독, 음악코치, (사)오페라인제주 음악감독 역임
- 현) 한국오페라코치협회대표, K-OPERA 대표, 강남문화재단 이사,
인터내셔널 퍼포밍 아트센터음악 감독, 성균관대, 목원대 외래교수



홍다경 리허설 반주

- 강남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 Accademia Internazionale dell'Opera Lirica "G.verdi" DIPLOMA
- 2023, 2024 한국오페라코치협회 Expert program Diploma
- 오페라 Die Zauberflöte, La Traviata, L'Elisir d'amore, Così fan tutte,
Rigoletto, Carmen, La Bohème, 창작오페라 구운몽, 창작뮤지컬 동심,
오페라 카르멘, 리골레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사랑의 묘약 등 다수의
오페라 반주 및 오페라 코칭



무대 감독
이진수



진행 감독
정근화



영상 오퍼레이팅
진용은



홍보 디자인
박자인



영상 디자인
박대황



주관 단체 소개 INTRODUCTION

김앤리 프로덕션

2016년 김앤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창단한 김앤리 오페라단은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친절하고 재미있는 중극장 오페라’를 테마로 6개의 민간 오페라단, 7개의 예술 단체, 6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뉴오페라 페스티벌을 주최 주관**하였다. 650석의 장천아트홀에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셉트로 열린 뉴오페라 페스티벌은 보다 친 대중적이고 접근성 있는 **참신한 시도의 공연**이라는 대중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도에는 자체 제작 기획한 **순수 창작 오페라 ‘뱀이 심장을 먹었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오페라 창작산실에서 최종 **공연작으로 선정**되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본 공연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각색하여 현대의 문제적 시점을 상징 비판하는 작품으로서 현시대의 권력과 언론의 문제를 예술로 잘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로도 ‘세이렌’, ‘봉쇄’ 등 순수 창작 오페라의 제작에도 무게를 두며 **현시대에 맞는 오페라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롯데콘서트홀에서의 오페라 콘체르탄테 ‘투란도트’를 주관한 것을 시작으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한 오페라 ‘청교도’, ‘마술피리’, ‘돈 조반니’, ‘토스카’를 각각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주관하였다.

김앤리 프로덕션은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오페라를 제작하여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과 언어의 하모니를 선사해 줌으로써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음악인들로부터 많은 주목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오페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주관 단체 소개 INTRODUCTION

김앤리 프로덕션 공연 사진



오페라 콘체르탄테 투란도트



오페라 굴뚝청소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갈라콘서트 마술피리

단장



이명국

-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G. Rossini 국립음악원 수석졸업 -Pesaro
- Franz Schubert, Orvieto, E. Caruso, M. Lanza 국제 성악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 입상
- Le nozze di Figaro, La Traviata, Rigoletto, Tosca, L'Elisir d'Amore,

오페라 아! 고구려 광개토대왕, 나비부인, 라보엠, 까르미나 브라나, 꼬지 판 뚜떼, 헨젤과 그레텔, 빨리앗치, 에프게니 오네긴,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외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K B S 열린음악회 외 수백 회의 콘서트 출연

·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헨젤과 그레텔, 마술피리, 호프만 이야기, 투란도트,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리골렛토 등 다수의 오페라 출연 및 사랑플러스 콘서트, 한중 라이징스타 콘서트 등 다수의 콘서트 기획 제작

· 현) 김앤리오페라단 단장, 대한민국 오페라단연합회 이사, 세계4대오페라축제 운영위원장, 중앙 콩쿠르 심사위원,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주최 단체 소개 INTRODUCTION

세계4대오페라축제

오페라의 친 대중화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오페라 공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4대오페라축제는 6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가 선정하는 지역대표예술공연제에 선정됨으로써 그 의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축제는 시대에 맞는 공연 콘셉트를 적극 도입하면서도 오페라 예술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민간 오페라단 주최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 콘서트>, 뮤지컬 콘셉트를 적용해 일반 대중의 큰 호응을 받은 <2017 세계4대오페라축제>, 정통 창극을 오페라화한 <청>, 연극과 오페라의 결합으로 OperaPlay장르를 개척한 <팔리아치>, 순수 아동 오페라 <굴뚝 청소부>, 세계 최초로 16개 오페라 작품을 하나의 축제에 구성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페스티벌> 등 지난 10년간 52개의 오페라 및 오페라 관련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장을 주도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은 물론, 더케이 아트홀, 장천 아트홀, 우리금융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 마포아트센터와 같은 중극장,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물빛 무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등의 야외 무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세계4대오페라축제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다수의 공연이 공연예술통합전상망의 KOPIS클래식 순위에 1위를 비롯해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의 사회적 사명에도 충실하고자 본 축제의 캠페인인 <예술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객석 기부를 실천함으로써, 그간 30여 복지 단체, 4,000명 이상의 공연 소외계층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설립 10주년이 된 지금도 세계4대오페라축제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오페라 공연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주최 단체 소개 INTRODUCTION

역대 공연

물빛무대 야외콘서트
한강고수부지 물빛무대

오페라 '카르멘'
광림아트센터

오페라 '마술피리'
광림아트센터

오페라 '춘향전'
광림아트센터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광림아트센터

2016세계4대오페라갈라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중과 함께 즐기는
오페라와 크로스오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2017세계4대오페라갈라콘서트
롯데콘서트홀

환희의송가와 오페라합창명곡
롯데콘서트홀

오페라 '사랑의 묘약'
우리금융아트홀

오페라 '메리위도우'
우리금융아트홀

오페라 '파우스트'
우리금융아트홀

전통창작오페라 '청'
우리금융아트홀

이탈리아 푸치니 페스티벌 초청
오페라 '투란도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토스카'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2018세계4대오페라갈라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콘체르탄테
'에프게니 오네긴'
롯데콘서트홀

베르디 레퀴엠과 오페라 합창 명곡
롯데콘서트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더케이 아트홀

야외 오페라 '마술피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석촌호수 야외콘서트
석촌호수 동호

평화의광장 야외콘서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어린이 오페라 '굴뚝 청소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오페라 '팔리아치'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언포게터블 송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오페라속의 세계명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창작 오페라 '인형의 신전'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2019세계4대오페라갈라콘서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오페라콘체르탄테 '파우스트'
롯데콘서트홀

대한민국 10대 오페라가수 콘서트
롯데콘서트홀

오페라콘체르탄테 '사랑의 묘약'
롯데콘서트홀

오페라콘체르탄테 '라트라비아타'
롯데콘서트홀

오페라콘체르탄테 '투란도트'
롯데콘서트홀

오페라콘체르탄테 '카르멘'
롯데콘서트홀

오페라 갈라콘서트 'Emotio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갈라콘서트 'Hop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콘체르탄테 'Love'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콘체르탄테 'Passio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지상 최대의 오페라 갈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표



박태환

- 연세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이탈리아 스칼라아카데미, 밀라노 시립음악원 수료
- Vercelli Viotti, Rosetum, Ispra Mongini, Musica e Vita 국제 콩쿠르 수상
- 이탈리아 오페라 에이전시 Aliopera, Punto Opera 전속 가수 역임
- 이탈리아 Soresina 'Mario Basiola' 협회 선정 2017 베이스 가수 상 수상
- 동양인 베이스 가수 최초로 밀라노 스칼라극장 정규시즌 오디션 합격

- 밀라노 La scala극장, 스위스 Lausanne극장, 피사의 Verdi극장, 라벤나 Dante Alighieri극장, Novara Coccia극장, Sassari Verdi극장, Trento 시립극장, Cremona 시립극장, Brescia Grande극장, Como Aslico극장, 만토바 시립극장, Faenza Masini극장, 스폴레토 페스티벌, 대만 웨이유잉 국립아트센터를 비롯한 세계각지의 30여개 주요극장에서 마적, 돈조반니, 리골레토, 루이자밀러, 아이다, 투란도트,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나비부인, 레이디맥베스, 고고노에이코, 더 레이크스 프로그레스, 돈까를로, 마농레스코, 삼손과 데릴라, 사랑의 묘약 등 공연
- 2015년 세계4대오페라축제 설립. 지난 10년 간 52개의 오페라 공연 기획 제작

지상 최대의
오페라 선율

감사합니다